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 1 —

牛郎星和织女星

外 5 篇



作者介绍

小泽俊夫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长

1930 年生于中国・吉林省。筑波大学名誉教授。昔话大学 / 小泽昔话研究所负责人。主要著书《日本の昔話》全五卷（福音館書店）、《昔話の語法》（福音館書店）等。

刘守华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35 年生于中国・湖北省。华中师范大学教授。主要著书《中国民间故事史》（湖北教育出版社）、《比较故事学论考》（黑龙江人民出版社）等。

金和经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47 年生于韩国・庆尚道。岭南大学校文科大学国文学科教授。主要著书《한국의 설화》（시식산업사）、《애들아, 한국신화 찾아가자.》（오후의 북 3 시）等。

马场英子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50 年生于日本・冈山县。新潟大学人文学部教授。主要著书《龍宮からきたおよめさん》（ほるぷ出版）、《北京のわらべ唄 1・2》（研文出版・共著）等。

蔡 皋

1946 年生于中国・湖南省。绘本画家、插图画家。主要作品《荒园狐精》（浙江少年儿童出版社）、《桃源郷ものがたり》（福音館書店）等。

金晟敏

1965 年生于韩国・汉城特别市。绘本画家。主要作品《토끼전》（창작과비평사）、《두꺼비의 보은》（보리출판사）等。

太田大八

1918 年生于日本・长崎县。活跃于绘本、插图、装帧界。主要作品《馬ぬすびと》（福音館書店）、《仙人になる方法》（小峰書店）等。

金东勋

1942 年生于中国・吉林省。延边大学朝鲜文学系教授。主要著书《朝鲜民间故事比较研究》（辽宁民族出版社）、《朝鲜族文化》（吉林教育出版社・共编）等。

季 颖

1949 年生于中国・河北省。儿童文学作家・翻译家・研究者。主要著书《一块花布》（中国少年儿童出版社）、《青蛙卖泥塘》（少年儿童出版社）等。

大竹圣美

1969 年生于日本・埼玉县。东京纯心女子大学专任讲师。主要译书《インゲンニムのみみ》（古今社）、《うしとトッケビ》（アートン）等。

本书的出版得到下列人士的协助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相贺昌宏（财团法人 出版文化产业振兴财团理事）

小峰纪雄（儿童读书推进会议副代表）

村田训子（小泽昔话研究所研究员）

企画・编辑协助

任章赫（中央大学校文化大学助教授）

藤井いづみ（白百合女子大学讲师）

朴恩德（翰林出版社编辑）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1
牛郎星和织女星 外 5 篇

2004 年 10 月 25 日发行

企画

中韩日儿童童话交流事业实行委员会

（组织成员：思考儿童未来议员联盟 等）

编辑

财团法人 出版文化产业振兴财团（JPIC）

后援

中华人民共和国驻日本大使馆

驻日本大韩民国大使馆

日本国文部科学省

发行

独立行政法人 国立奥林匹克纪念青少年
综合中心

〒 151-0052

东京都涩谷区代代木神园町 3-1

电话 03-3467-7201

<http://www.nyc.go.jp>

印刷・装订

凸版印刷株式会社

NDC908 260 × 215mm 88P

ISBN4-9027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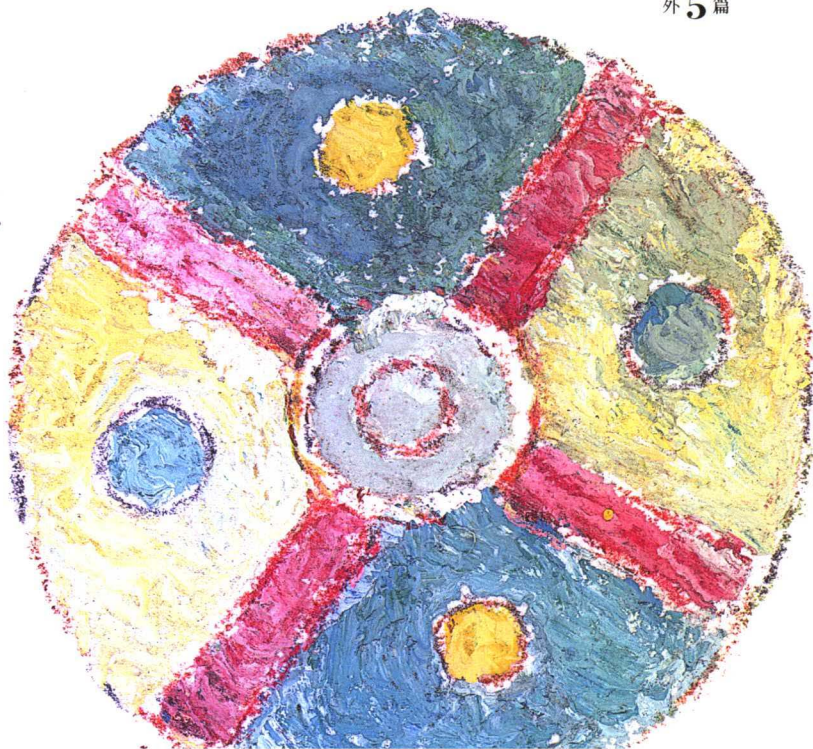
Printed in Japan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1

牛郎星和织女星

外5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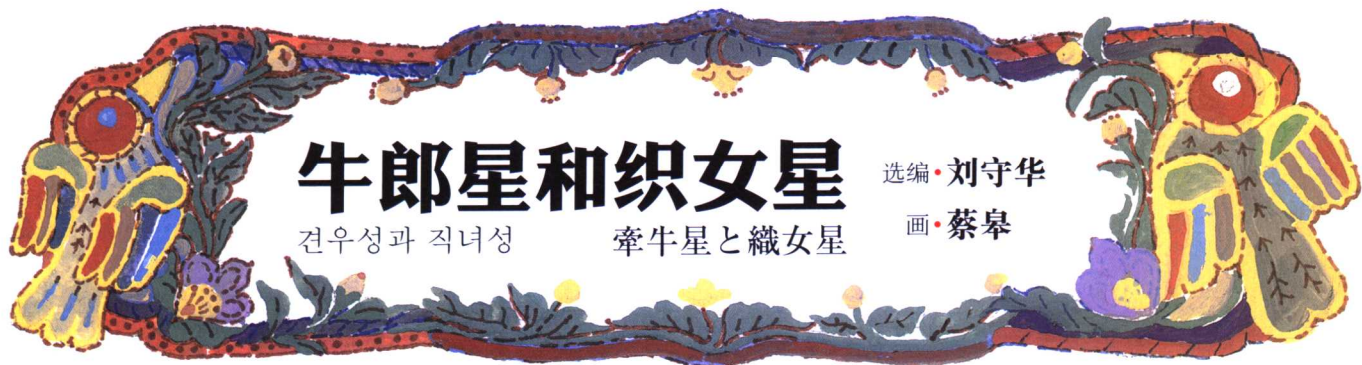
装帧设计 杉浦 范茂

Text : ©Toshio Ozawa 2004. ©Liu Shouhua 2004. ©Kim Wha Kyong 2004.
©Eiko Baba 2004. ©Jin Dong Xun 2004. ©Ji Ying 2004. ©Kiyomi Otake 2004.
Illustrations : ©Cai Gao 2004. ©Kim Soung Min 2004.
©Daihachi Ohta 2004 by Medialynx Japan.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1

目次

1. 牛郎星和织女星 (中国)	4
2. 仙女和樵夫 (韩国)	18
3. 天女媳妇 (日本)	34
4. 熊家婆 (中国)	50
5. 成为日月的兄妹 (韩国)	62
6. 老天爷 铁链子 (日本)	74
7. 解说	84
8. 致辞	87



牛郎娘儿俩过日子。他妈给人家做饭，他给人家放牛。牛郎十几岁时候，他妈死了，他就一个人生活。

牛郎对牛很好。牛棚里早晚垫得干干的。白天，他和牛一起上山，夜里，他就睡在牛栏里。一有闲空，牛郎就给牛梳毛，就给牛割草，把牛侍候得膘满肉肥，毛色闪闪发亮，溜光溜光。

一年一年过去了，牛慢慢老了。那天，牛郎赶老牛上山，牛不吃草，只是站在那儿出长气。他问：“牛大哥，牛大哥，你往日上山，甩尾巴，楞耳朵，大口大口吃草。今儿咋就不高兴啦？”

牛郎本是说着玩的，想不到老牛张张嘴，眼泪直流，真的答话了：





건우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했고, 건우는 부잣집의 소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건우가 열서너 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우는 소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는 외양간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마른 짚을 깔아 주었습니다. 또 낮에는 소와 함께 산에 갔고, 밤이면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틈만 나면 털을 빗어 주고 풀을 베어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가 보살펴 준 덕분에, 소는 포동포동 살이 찌고 털은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은 흘러 소도 점점 늙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소를 몰고 산에 갔더니, 소는 풀을 뜯지 않고 한 곳에 멈춰 서서 ‘푸-우’ 하며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건우가 “이봐요, 소형! 언제나 산에 오면 꼬리를 흔들고 귀를 쫑긋거리며 풀을 뜯어 먹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건우는 장난으로 말을 걸었는데, 늙은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昔、母さんとむすこが二人でくらしていました。母さんはよその家ためしたきをし、むすこは牛の世話をしていました。牛飼が十二、三のとき、母さんがなくなると、牛飼は一人ぼっ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牛飼は、牛をととてもだいじにしました。牛小屋には、いつも気持ちよくほし草がしいてありました。昼は、いっしょに山に行き、夜はいっしょに牛小屋で休みました。ひまさえあれば、牛の毛をすき、草を刈ってきてやりました。牛は、よくこえて、毛なみもつやつやしていました。

こうして一年一年と時がたち、牛はだんだん年をとりました。

ある日、牛飼が牛を山につれていくと、牛は草を食おうとせず、じっとして、ふーっと息をつくばかり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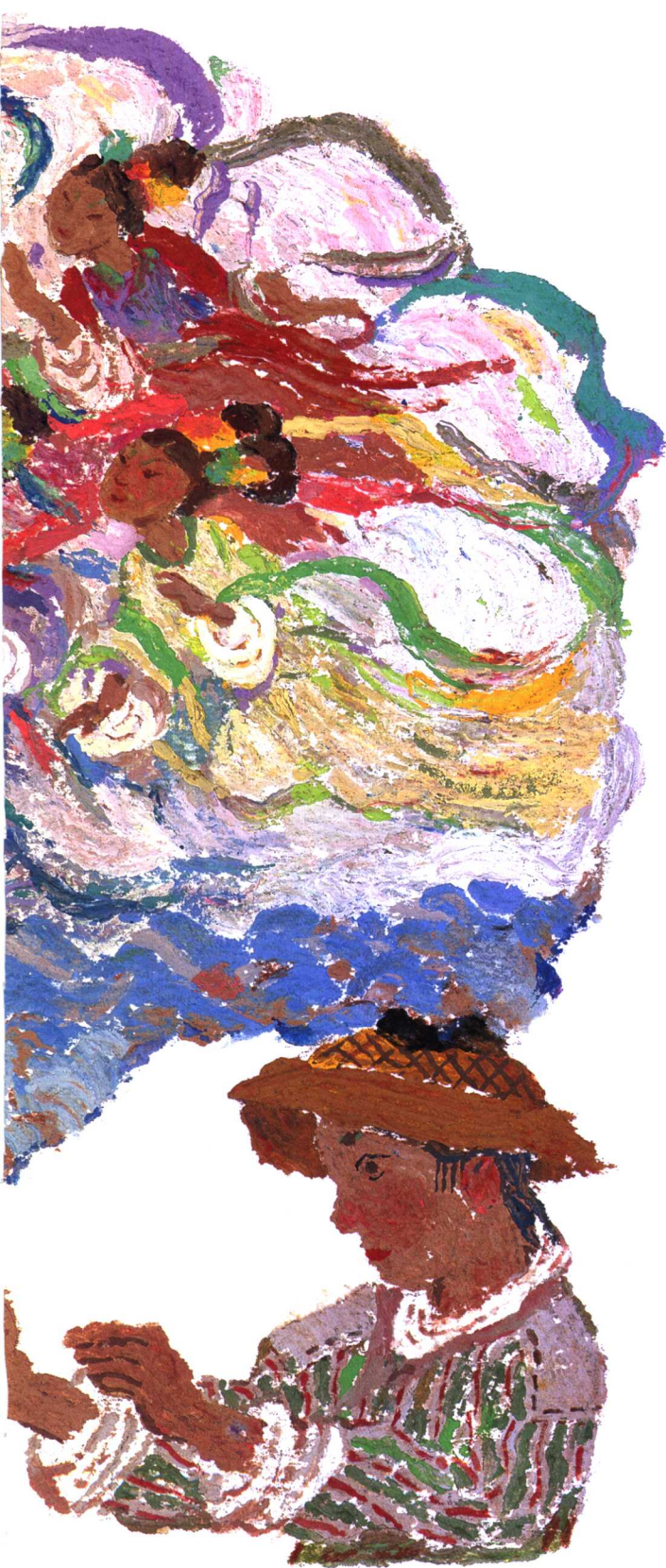
「牛にいさん、いつも、山に来れば、しっぽをふり、耳をぴんと立て、ばくばく草を食うのに、きょうはどうしたの」

牛飼はちょっとからかったつもりでしたが、牛はなみだをぼろぼろこぼして、答えました。

“牛郎，牛郎，你侍候我这些年，把我看做亲兄弟。我今儿对你说实话，我是天宫牛头夜叉，因犯罪降下凡来。时间到了，我要回天宫了。我看你一个人怪孤单的，我要给你办个好事。明天正当午时，你翻过后山，河里有七个姑娘洗澡。你啥也别管，只拿那件黄绿色的衣裳，抱起就跑。这样，好事就能办成了。”

第二天，正当午时，牛郎照着牛大哥的话，从河边抱回一件黄绿色的衣裳给它看。老牛点点头，可它又哭起来了。它一哭，牛郎也哭了。老牛说：“我是要走了。我死后，你把我的皮剥下来，把角取下来，有啥急事，这两件东西会给你帮忙。”说罢，老牛死了。





“건우야, 건우야. 지난 몇 해 동안 너는 나를 친 형제처럼 보살피 주었지. 오늘은 너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겠다. 난 원래 하늘나라를 지키는 신이었던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내가 가면 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너에게 한가지 좋은 일을 만들어 주고 가고 싶단다. 내일 정오 무렵에, 네가 뒷산을 넘어 가면 강변에서 일곱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을 거다. 그때 넌 살금살금 다가가서 초록빛이 나는 옷을 훔쳐 집으로 뛰어 오너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튿날 정오가 되었을 때, 건우는 소가 시키는 대로 강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옷 한 벌을 훔쳐 안고 집으로 뛰어들어 소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늙은 소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웬일인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가 울자, 건우도 따라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말하기를 “난 이제 곧 떠나게 된단다. 내가 죽으면 네가 나의 가족을 벗기고 뿔을 뽑아 잘 두거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두 가지 물건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늙은 소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おまえは何年も、実の兄弟のように、わたしを世話してくれた。きょうは本当のことを話そう。わたしは、天を警護する牛神だ。つみをおかして、この世に下されたが、天に帰るときが来た。一人ぼっちのおまえに、いいことを教えてやろう。明日の正午ぴったりに、うら山をこえていくと、川で七人のむすめが水浴びをしている。まよわず、うす緑の衣をとって、にげてこい。そうしたら、いいことが起きるぞ」

次の日、正午ぴったりに牛飼は牛の言いわけどおりに川辺からうす緑の衣をとってきました。衣を見ると、牛はうなずいて、また泣きだしました。牛飼も泣きました。

「これで、おわかれだ。わたしが死んだら、皮をはぎ、角をとってしまっておけ。こまったときにこのふたつのものがきっと役に立つだろう」

こう言い終えると、牛は死にました。

견우는 죽은 소 옆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소의 당부대로 소가죽을 벗기고 소뿔을 주려 낸 다음 땅에 고이 묻었습니다.

저녁에 견우가 혼자 쓸쓸히 그 초록색 옷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웬 처녀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처녀는 하늘나라에서 비단을 짜는 선녀였습니다. 선녀는 그림처럼 예뻐했습니다. 선녀가 “견우님, 이제부터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살 것이오니 저를 아내로 맞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인데 어찌 부부가 될 수 있단 말ियो?” 견우가 이렇게 말하자 선녀가 대답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없다면 어찌하여 저의 옷을 훔쳐 왔나요?” 견우는 할 수 없이 선녀를 맞아들여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선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한 두 아이는 남달리 귀엽게 자랐습니다. 살림은 가난했으나 네 식구는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牛飼は牛のかたわらで大泣きしたあと、皮をはぎ、角をとってから、牛をほうむりました。

夜、牛飼が、一人ぼんやり、とってきたうす緑の衣を見つめていると、とつぜん、むすめが入ってきました。それは絵のように美しい天の織女でした。織女は牛飼に、「ここで、いっしょにくらしましょう」と言いました。

牛飼は「天の神様とこの世の者が、どうしていっしょにくらせるでしょう」と言いましたが、

「あなたが衣をとったのですから、いっしょにくらしましょう」と織女が言いました。

こうして、牛飼と織女はいっしょにくらすようになりました。

一年たち、織女は男の子と女の子を産みました。子どもたちはまるまる太ってかわいくて、一家四人はまずしいけれど、幸せにくらしていました。

牛郎在老牛身旁大哭了一场，含着眼泪剥牛皮，取牛角，埋了牛身子。

晚上，牛郎孤单单地正对着那件黄绿色的衣裳发愣，屋内突然进来个姑娘，她是天上织绸缎的仙女，长得像用笔画的一般。她说：“牛郎，我住下和你成亲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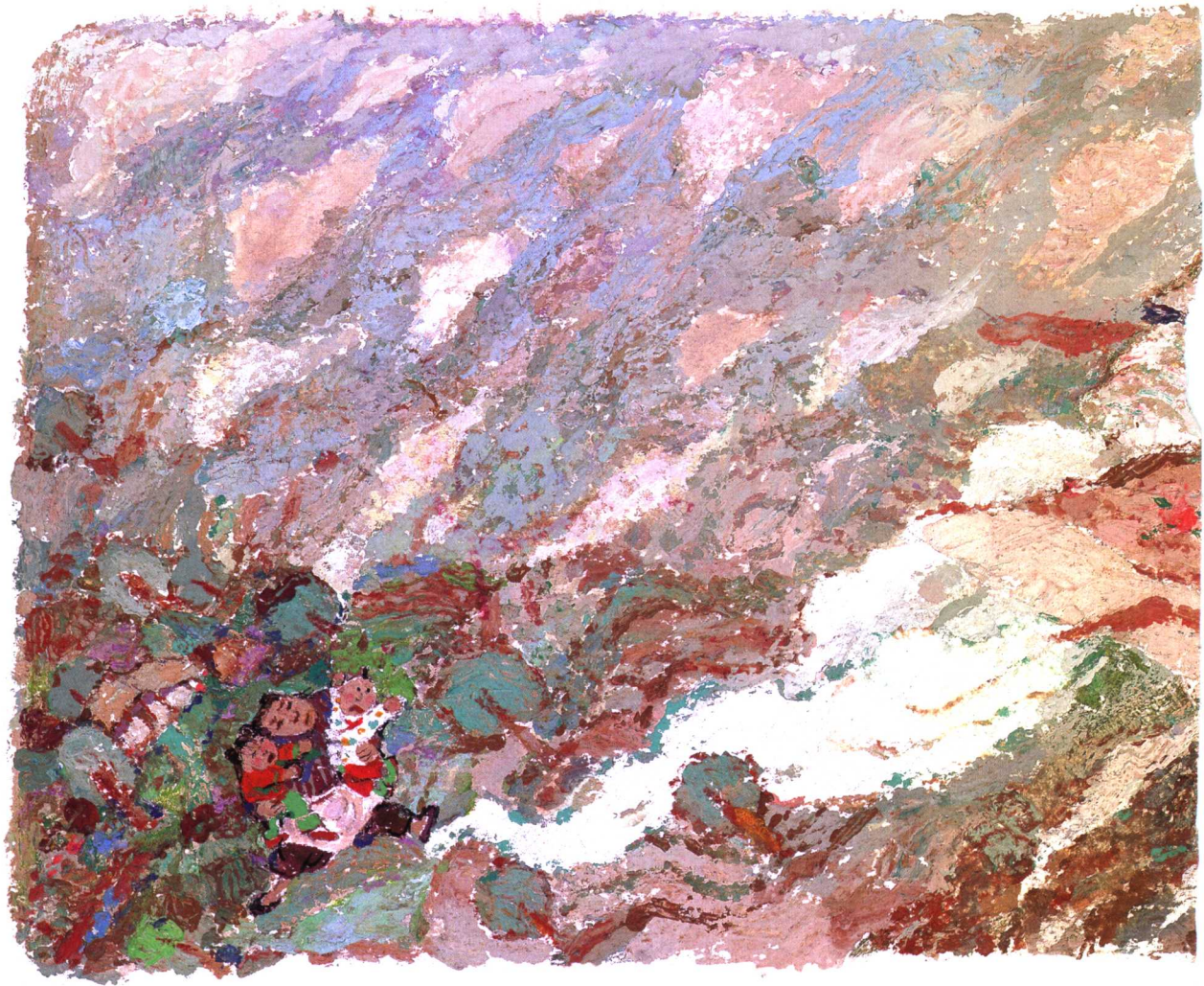
牛郎说：“你是神仙，我是凡人，咋能成亲呢？”

仙女反问：“不能成亲，你为啥拿我衣裳？”

牛郎被问住了。他只好留她住下。

一年过去了，仙女生下了一儿一女，两个娃子又胖又逗人爱，四口人在一起，虽说日子过得苦，牛郎心里还是怪快活。





第三年的七月初七,天上突然“冬冬冬”响起了天鼓。只听天神在云里大喊:“织女归天!织女归天!”

仙女听到喊声,咋舍得牛郎和娃子,她哭起来了。她对牛郎说:“我在天上天天织布,不回去不行。我走后,你要将娃子照顾好。”说着,天鼓又响了,天神又喊又叫,她只得飞上天去了。



그런데 삼 년째가 되는 해 칠월 초이렛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우르릉' 하며 천둥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구름 속에서 천신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녀는 지금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오너라! 직녀는 지금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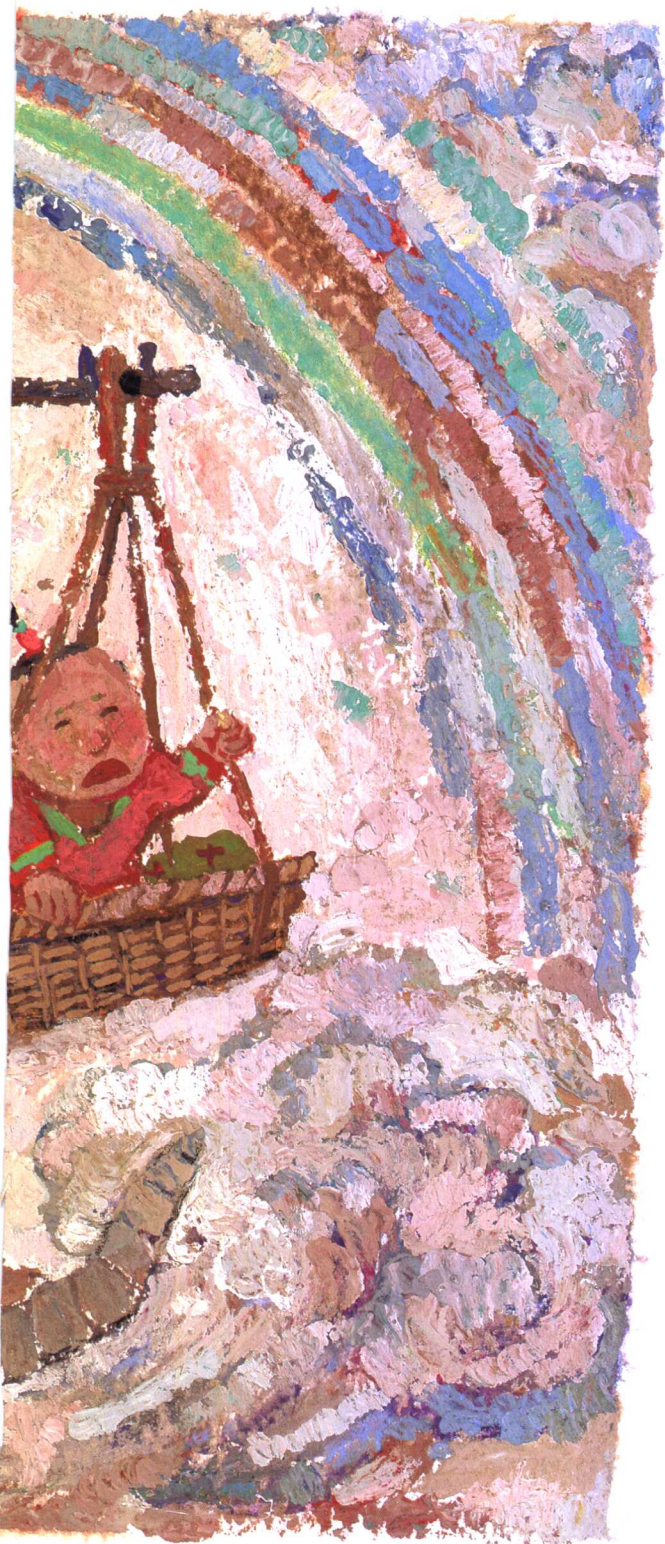
선녀는 그 호령을 들었지만, 차마 견우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견우에게 "저는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비단을 짜는 직녀이기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떠난 후 서방님께서 아이들을 부디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늘의 북소리가 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천신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녀는 더 지체하지 못하고 곧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三年目の七月七日、とつぜん、天からドーンドーンとたいこの音がひびき、天の神が「織女、帰ってこーい」と大声でよぶ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

織女は、牛飼や子どもたちとわかれたくない、と、泣きだしました。織女は、牛飼に言いました。「わたしは天で毎日、はたをおっていましたから、もう帰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うか子どもたちのめんどうをよく見てください」

その間にも、たいこがひびき、天の神がまたどなりだしました。織女は天に帰って行きました。





一对儿女看着妈妈上天了，更是哭得泪淋淋。牛郎一边哄娃子，一边自己也哭。这时候，他猛地想起了老牛的话，赶紧拿了牛皮披在身上，把牛角踩在脚下。说来也怪，一对牛角一下子变成了两只小船。牛郎用两只筐子挑着一儿一女，两脚蹬在船上，也“呼”一下飞上天去了。

어린 남매는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발버둥을 치면서 슬게 울었습니다. 건우도 아이들을 달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때 문득 늙은 소가 일러 주던 말이 생각나서, 재빨리 소가죽을 가져와 몸에 걸치고 소뿔을 꼭 밟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 쌍의 소뿔이 순식간에 두 척의 쪽배로 변했습니다. 건우는 아들 딸을 두 광주리에 담아 메고 두 발로 쪽배를 딛고 선녀를 따라 하늘로 날아올라 갔습니다.

母さんが天にのぼっていくのを見て、子どもたちはのどがはりさけるまで泣きさけび、牛飼も子どもたちをあやしなから泣きました。このとき、牛飼はふと、牛の言葉を思い出しました。急いで牛の皮をはおり、牛の角に足を入れると、ふしぎなことに、牛の角はたちまち二そうの小船になりました。

牛飼が男の子と女の子をそれぞれかごに入れて天びんぼうでかつぎ、二そうの船に足をかたほうずつ入れると、船はすぐにヒューッと天にのぼりだしました。



他拼着命，也要追赶自己的媳妇。

牛角变成的船飞得真快，牛郎和仙女越来越近，看看就能
撵上她了，就要抓住她的衣裳了。



소꿉이 변해서 된, 그 쪽배가 어찌나 빨랐던
지, 건우는 갈수록 직녀와 가까워져 금세 그를
따라잡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우의 손이
직녀의 옷자락에 닿는 그 순간,

牛飼は必死で織女を追いました。二人の間は
どんどんちぢまり、牛飼は今にも追いついて、
織女の衣をつかみそうになりました。